

뉴스홈 | 최신기사

## 일본 첫 여자 프로야구선수 탄생 임박

송고시간 | 2008-11-05 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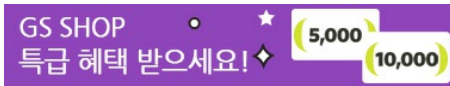


이충원 기자  
기자 페이지

<일본 첫 여자 프로야구선수 탄생 임박>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여자 투수가 '마구(魔球)'를 던져 남자 타자를 삼진으로 잡는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웃나라 일본에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와 데일리스포츠가 5일 소개한 화제의 주인공은 가와사키기타고교 2년생 요시다 에리(16). 요시다는 내년 4월에 개막하는 세미프로리그인 간사이 독립리그의 신인 선발 테스트를 최종 통과해 16일 신인 지명을 앞두고 있다.



5개 팀 중 고베 나인 크루즈와 오사카 발리케인즈 등 두 팀이 요시다를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요시다 쟁탈전'까지 예상되고 있다. 16일 실제로 지명을 받으면 남자 선수와 함께 뛰는 일본 첫 여자 프로야구선수가 탄생한다.

직구 최고 구속이 101km에 불과한 우완 언더핸드 투수 요시다가 이처럼 프로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너클볼 때문. 4일 실전 테스트에선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타자 4명을 상대로 공 7개를 던졌는데 이중 5개가 솟아올랐다가 흔들리며 떨어지는 너클볼이었다. 타자 한 명을 볼넷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나머지는 헛스윙 삼진과 2루 땅볼, 유격수 플라이로 막아내며 관중석에서 박수갈채까지 받았다.

나카다 요시히로 고베 감독은 "공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다"며 "남자 선수라도 저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변화구는 던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게 히로시 오사카 투수 코치도 "너클볼과 직구를 같은 자세로 던지는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요시다의 꿈은 물론 프로야구선수가 되는 것. 만화를 보며 프로의 꿈을 키워왔다. 중학교 야구부에선 주전 1루수를 맡았고, 고교 진학 후엔 여자야구 클럽팀에서 뛰었다. 키 155cm, 50kg의 작은 체구. "너클볼을 던지면 프로선수가 될 수 있다"는 아버지 요시다 유(45)의 권유로 2년 전부터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투수 팀 웨이크필드의 투구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며 너클볼을 배웠다.

남은 장벽은 학교 문제다. 고베나 오사카에서 프로선수로 뛰면서 도쿄 부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구만 할 수 있는 날을 꿈꿔왔다"는 요시다가 16일 실제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성 야구팬의 눈길이 뜨거워지고 있다.

chung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5 18:18 송고

당신과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된 흔적"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복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 채 두 눈만 열쫘쫘...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중,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5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6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6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계약사/제휴문의